

19세기 한중 문인의 石交: 문화사적, 인류학적, 포스트휴머니즘적 분석

신정수, 한국학중앙연구원

1. 들어가며

수석 감상은 여타 문명에 보이지 않으며 동아시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이다. 문인들은 자신이 아끼는 돌을 친구에게 선물하고 친구는 그 돌을 선물한 친구의 분신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단단한 돌처럼 변치 않는 우정을 상기하였다. 이러한 수석 문화가 발전하면서 石交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석교는 이미 史記 와 같은 고대 문헌에 등장하지만 돌의 단단한 물성과 사람의 강직한 품성을 연관 지워서 생각하는 관념은 倪元璐(1593~1644)와 같은 명말 문인들에게서부터 나타난다.

예원로는 괴석을 매개로 친구들과 交遊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돌과의 交感, 즉 사물과 사람의 우정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 인문학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객체 지향의 사물 인식을 추구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맥락과 닿아 있다.(신정수, 2022년 8월. “明末 文人畫家 倪元璐의 石交圖 研究”, 中國文化研究 88: 143-65) 이밖에도 석교는 문인들 간에 돌을 선물로 주고받는 交換의 의미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석교의 의미를 세 가지 층위, 즉 交換, 交遊, 交感으로 해석하면서 19세기 한중 수석 문화의 특징과 양상을 규명할 것이다. 그동안 19세기 한중 교류는 옹방강, 신위, 김정희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석교의 경우 趙冕鎬(1803-1887)가 가장 주목할만한 작가이다.

趙冕鎬(1803-1887)는 1867년 정초에 자신이 아끼는 11점의 수석에게 예를 올리고 이를 기념하여 「禮十一石」을 짓는다. 조면호는 관직에 물러나 있었지만 북촌의 시회를 주도하고 있었고 또 당시 서울에 수석 문화가 한창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십일석」은 많은 문인들의 관심을 받는다. 조면호는 이러한 반응에 호응하여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아홉 점의 수석에게 예를 표하는 「續禮石九詩」를 쓴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수석이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세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追禮三石」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괴석 문화에서 기념비적인 「禮石」이 삼부작으로 완성된다.

「예석」 삼부작은 19세기 조선의 수석 문화 전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예석」은 총 23명의 수석 소장자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 외에 작품에 함께 언급되는 문인들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金祖淳(1765-1832)부터 金昌熙(1844-1890)까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말까지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蔣詩(1768-1829), 曹江(1781 생) 등 동시대 중국 문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형식, 분량, 내용 등에서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작품은 중국에도 없다.

「예십일석」은 조면호가 수석의 원소유주를 회고하는 열한 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유주는 대부분 사망하였거나 만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작품은 기본적으로 추모와 그리움의 정서를 보여준다. 수석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원소장자의 신분과 나이, 사승관계, 친소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다. 여기서는 중국 문인과 교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제7수와 제8수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2. 「禮十一石」, 제7수

1828년(순조 28년, 道光 8년) 4월 13일 조선은 청나라가 회족(回族) 지역을 평정한 일을 기념하여 사절단을 보낸다. 陳賀正使 南延君 이구(李球, 1788-1836), 부사 이규현(李奎鉉), 書狀官 趙基謙(1793~1830)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연경에서 대략 40일 머물면서 중국 문인들과 교류하고 8월 중순에 귀국한다. 조면호는 연행에 따라가지 않았지만 季父 조기겸 등 다녀온 사람들의 소개로 웅양벽熊昂碧 등 중국 문인들과 사귄다. 웅양벽은 蔣詩(1768-1829)라는 문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의 두 아들 蔣鉞, 蔣鋤을 가르쳤었다.

蔣詩의 자는 泉伯, 호는 秋吟 절강성 인화 사람이다. 기운에게 시재를 인정 받았으며 저서로 秋吟詩鈔, 榆西仙館初稿 등이 있다. 한국 문인 중에는 신위와 교유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조면호와 웅양벽 두 사람은 만난 적은 없지만 이후 서신 왕래와 선물 교환을 하면서 우정을 다졌다. 웅양벽이 보낸 수석을 보면서 웅양벽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읊은 「예십일석」 제7수를 읽어보자.

一峰尤陡絶 우뚝 솟아오르는 제1봉,
 第二第三峰 아래로 제2봉과 제3봉.
 雲是秋吟客 구름은 가을을 읊조리는 나그네이니,
 雲飛便憶儂 구름이 날아오면 그대를 그리워하지.

절강의 蔣詩(호 秋吟)는 蔣鉞(호 少泉), 蔣鈞(호 容齋) 두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뛰어난 선비이다. 당시 金山(현 상해시 금산구) 출신의 雲客 熊昂碧이 장시의 집에서 머물면서 두 아들을 가르쳤다. 웅운객은 나와 깊은 우정을 맺었고 장시와 그의 두 아들과도 서신을 교환하였다. 웅운객은 비범한 풍모를 가지고 있다. 이 연산은 장시가 榆西館에서 보관하던 것이다. 색깔이 칠흑 같고 흰 구름이 앞뒤로 감싸고 있다. 기세가 또 세 봉우리에 있으니 고저가 있고 층층으로 되어 있다. 「운객이 옥수에게 준 시」(雲客贈玉垂詩)에 “날아가는 구름을 보면 나를 생각하게”(看到雲飛便憶儂)라는 구절이 있다.

시는 삼신산 형상으로 보이는 돌을 소개하고 돌을 선물한 웅양벽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된다. 해제에 따르면, 돌은 칠흑 같은 검은 색인데 돌의 앞뒤면에 구름과 같은 흰 줄이 그어져 있다. 제3행에 등장하는 구름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삼신산이라는 仙境에 어울리는 가을 구름을 의인화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웅양벽의 호가 雲客이라는 점과도 연관 지워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장시의 호가 秋吟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3행에 나오는 秋吟客은 장시에게 의탁해 지냈던 웅양벽이다. 이렇게 보면, 구름은 웅양벽을 비유하면서 동시에 세속을 초탈한 웅양벽의 높은 경지를 나타낸다. 제4행은 웅양벽이 조면호 자신에게 써 준 시구, “날아가는 구름을 보면 나를 생각하게”(看到雲飛便憶儂)를 활용하여 웅양벽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儂은 웅양벽이 태어난 강남지방의 방언으로 1인칭과 2인칭 대명사 모두로 쓰인다. 웅양벽의 시에서 儂은 웅양벽 본인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인데 조면호는 2인칭으로 바꾸어서 “그대를 그리워하리”(憶儂)라고 하였다. 조면호의 시적 감각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3. 「禮十一石」, 제8수

「예십일석」 제8수의 주인공은 조선 문인들에게 잘 알려진 조강曹江(1781-1837)이다. 조강은 정양문 바깥에 위치한 장가호동(蔣家衞衞)에 살았으며 그의 거처인 운간회관(雲間會館)은 유리창에서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조선 문인들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었다. 조선 문인들의 문집에 흠어져 있는 기록들을 종합하면, 조강은 1801년 유리창에서 柳得恭을 만났고 이후로 朴齊家, 南公轍, 金善民, 金善臣, 金正喜, 金命喜, 申緯, 洪敬謨, 申在植, 李壽民, 朴思浩 등과 친

분을 맺었다. 아직까지 연구가 소략한 조강과 조면호의 교유는 조면호의 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桃李層層月 복숭아, 오얏나무 사이로 층층이 비치는 달빛,
化爲萬仞山 [수석이] 변하여 만길 높이의 산이 되었네.
夢痕無覓處 꿈의 흔적 찾을 길 없어,
海燕碧天還 바다 위 제비 한 마리가 푸른 하늘에서 돌아오네.

曹江의 호는 玉水이다. 「취미태사 申在翼에게 주는 시」(贈翠微太史詩)는 다음과 같다. “봄날 밤 복숭아와 오얏나무 사이로 층층이 비치는 달빛, 가을비 오동나무 잎사귀마다 부는 바람. 모두 계단 위에 나무가 서있으니, 장차 추울지 따듯할지 하늘에게 묻는다.” 또 「이수민을 보내며」(別李桐廬)라는 시에 “내가 꿈속에서 그대를 따라 압록강을 건넜지. 푸른 하늘과 바다, 제비 한 마리가 멀리 떠있네.”라는 구절이 있다. 이 수석은 조강이 이수민에게 준 것이다. 조강이 “크기가 일촌이지만 만 길의 기세가 있으니, 완상할만하다.”라고 하였다. 이수민이 이 돌을 나에게 주었고 나 또한 조강에게 글을 주었다. 이제 40년만에 [이 글이 북경으로] 돌아간다.

조면호는 조강의 시 두 편과 돌에 대한 논평을 조합하여 한 편의 시를 완성하였다. 전반부는 「취미태사 申在翼에게 주는 시」(贈翠微太史詩)를 바탕으로 해서 조강과 이수민이 중국에서 수석을 감상하는 광경을 묘사한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아련한 달빛 속에서 작은 돌덩어리가 만길의 산으로 솟아오른다. 후반부는 조강이 귀국하는 이수민에게 써준 전별시를 전고로 해서 지어졌다. 조강은 이수민을 따라서 압록강을 건너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이 때 바다제비가 하늘에 초연히 떠 있었다. 조면호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 해제에서 그 제비가 40년 만에 돌아간다고 설명하였다. 이수민이 1828년 여행을 갔고 이 시는 1867년에 지어졌으니 대략 40년이다. 이렇게 볼 때 조면호의 시는 삶을 마감한 이수민이 제비로 변하여 바다를 건너 조강에게 돌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살아서는 만나지 못하다가 죽어서 해후한 것이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수민이 선물 받은 수석을 조면호에게 다시 주는 행위이다. 조면호의 다른 작품들을 보아도(예를 들어 「예십일석」 제3수) 중요한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례가 보인다. 이러한 행위들은 받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관념과 다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서구의 증여 이론으로 생각해 보자. 선물은 증여자 영혼의 일부가 수증자에게 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聖物(sacred object)이며 살아있는 존재(animated being)이다. 따라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원소유자에게서 정신적인 요소, 영혼의 일부를 빚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가지고만 있으면 오히려 본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양도할 수 없는 귀한 대상(inalienable object)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증여자에게 답례를 할 수 없다면 받을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점에서 선물 교환은 고정성을 의미하는 ‘양도할 수 없음’이라는 개념과 운동성을 의미하는 순환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해 준다.(와이너(Annette B, Weiner, 1985, 211), 고들리에(Maurice Godelier, 1996; 정현목, 2018, 475에서 재인용) 이수민은 본인보다 조면호가 수석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강에게 받은 수석을 조면호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수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조면호는 이 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예십일석」에 포함시키고 조강을 그리워하는 시를 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면호가 이수민이 아니라 수석의 원소유주 조강에게 답례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다. 증여의 과정을 따라가면, “조강-이수민-조면호-이수민”의 순서가 아니라 “조강-이수민-조면호-조강”으로 이루어 진다. 단순한 주고 받고 되값음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공동체의 연대감에 바탕을 둔 원형적 순환이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소유에 대한 관념으로도 선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당말의 재상 李德裕(787-850)이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와 돌에 대한 집착은 잘 알려져 있지만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문인들도 많았다. 정원의 나무나 돌의 소유주를 계속 거슬러 추적해 나가면 제일 처음에 조물주, 즉 자연이기 때문에 소장자들은 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 잠시 빌리고 있는 셈이다. 현대적 맥락에서 보면 共有와 상통한다. 이러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면호와 동료 문인들은 자신이 아끼는 수석을 빌려주거나 선물하는 것을 굳이 마다하지 않았다. 수석은 자연이라는 근원적 증여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빌려주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원로의 석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사물과 교감한다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사고방식 역시 이러한 근원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한다. 문명 이전의 사회에서 사물은 살아있는 존재(animated being)이며 정신적인 요소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감상자가 본질의 동일성(identification of essence)에 따라서 사물의 정신을 포착할 때 교감이 이루어진다. 동아시아의 세계관에서는 인격적 창조자를 전제하지 않고 자연이 자체적으로 변하면서 만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만물의 모태로서 ‘자연’과 자연의 구체적 양태로서 ‘개체’는 존재론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유가, 불가, 도가의 해석은 각자 다르지만 모두 만물이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람과 사물이 모두 자연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의 본성을 회복할 때 사람과 사물이 교감하고 나아가 상호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진다.

주지하다시피 서양 전통에서 인간은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영성과 근대철학이 내세운 이성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자연을 개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대안적 모델을 문명 이전, 비서구사회의 원시적 사유에서 찾고 있다. 이제까지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했던 원시적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 동아시아 세계관은 문명과 자연을 함께 아우르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자연과 문명의 분리 그리고 이제 다시 통합을 시도하는 서양의 지적 전통과 궤를 달리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수석 문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범신론적 유기체적 세계관이 기층문화와 지식인 사회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여타 문명과 차별성을 갖는다.

4. 나오며

서구의 증여 이론은 선물을 받으면 되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동아시아 문인들의 선물 교환은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돌을 선물하면 石供이고 꽃을 선물하면 花供이다. 이러한 공양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며 종교적 맥락에서 報施의 일종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식이 황주에 유배 중일 때 아이들이 냇가에서 주운 돌을 떡을 주고 사서 자신이 존경하는 佛印(1020-1086) 스님에게 드린 일이 이러한 경우이다. 자신을 마음을 표현하는데 반드시 태호석과 같은 비싼 괴석일 필요는 없으며 일단 준 이상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 지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는다.

석교에 참여한 문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았지만 돌의 物性を 상기하면서 부박한 세태에 부화뇌동하지 않았다. 높은 정신성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개인의 아집에 빠지거나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으나

문인들은 바다 건너 이국의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하였다. 요약하면, 19세기 한중 문인들은 수석 문화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의를 확보하였다. 이점에서 수석은 단순히 玩物이 아니라 정신적 기제(agency)로 작용한다.